2022. 1월중 정례반상회 홍보자료 목록

《 홍보사항 》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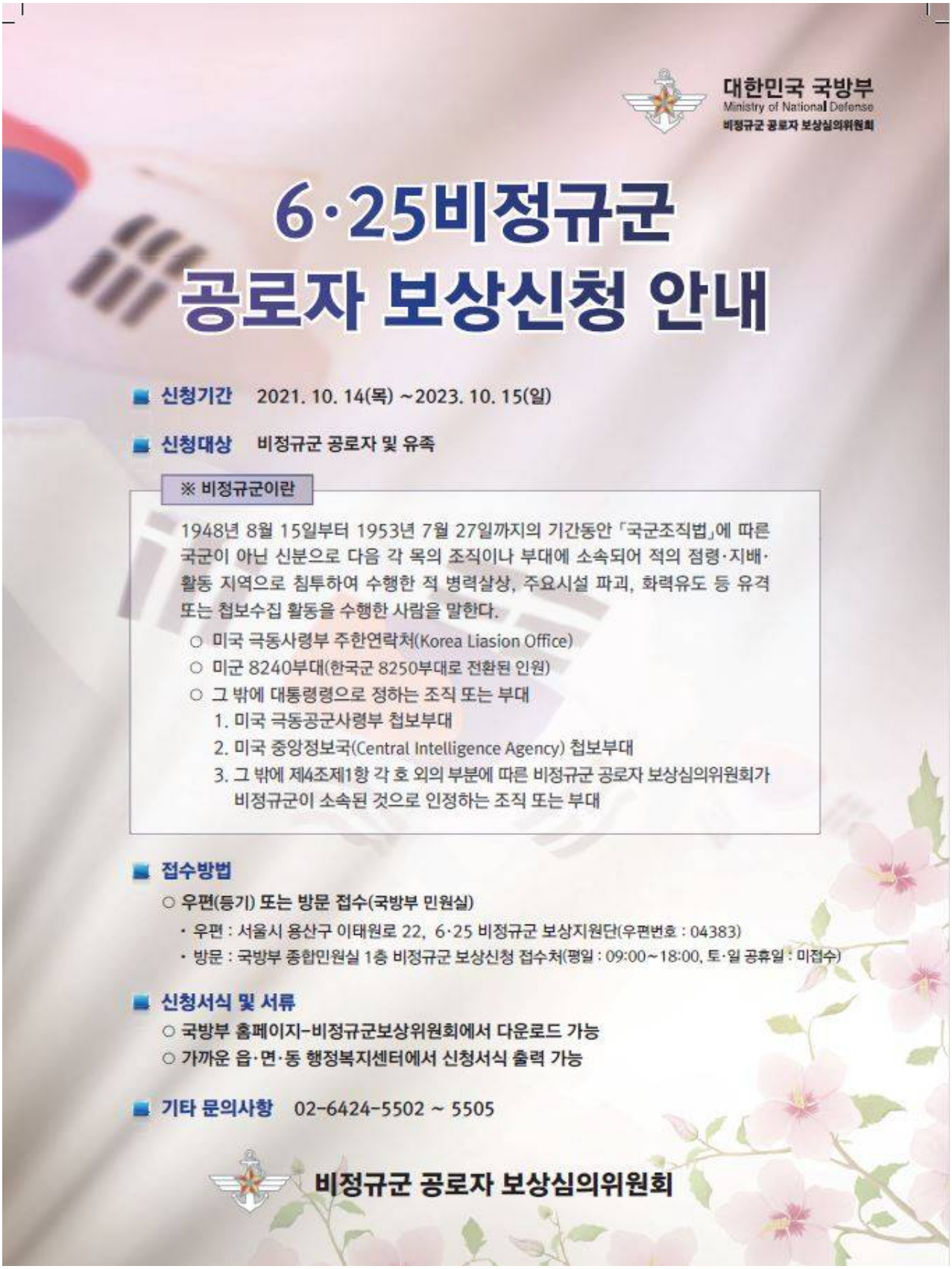
- ○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 국방부
- ○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군범죄 신고/상담 국방헬프콜 ☎1303 / 국방부
- ○ 6·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 국방부
- ○ 봄철 산불조심 작은 불도 위험해요 / 행정안전부
- ○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 행정안전부 주민등록변경위원회
- ○ 1월 국정홍보만화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응하는 방법) / 문화체육관광부
- ○ 1월 국정홍보만화(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 문화체육관광부
- ○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 농림축산식품부
- ○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 농림축산식품부
- ○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 농림축산식품부
- ○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 농림축산식품부
- ○ 스마트농업 확산 / 농림축산식품부
- ○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 농림축산식품부
- ○ 2022년 밀 산업 주요 추진 정책 / 농림축산식품부
- ○ 1월 제철 농산물 홍보 / 농림축산식품부
- ○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 농림축산식품부
- ○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 / 보건복지부
- ○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 보건복지부
- ○ 청소년의 걱정·고민상담, 「 1388 」을 기억하세요 / 여성가족부
- ○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의 공간, 청년주거지원 / 국토교통부
- ○ 문재인정부 5년 입법성과 / 법제처
- ○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당부 등 국민행동수칙 안내 / 질병관리청
- ○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 질병관리청
- ○ 올해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 질병관리청
- ○ 올해부터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 질병관리청
- ○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 국가보훈처

《 이달의 역사인물 》

- ○ 2월의 독립운동가 강기덕 선생 / 국가보훈처
- ○ 2월의 6·25전쟁영웅 여성의용군 / 국가보훈처
- ○ 2월의 호국인물 전명운 의사 / 국가보훈처 전쟁기념관

6·25 비정규군 공로자 보상신청 안내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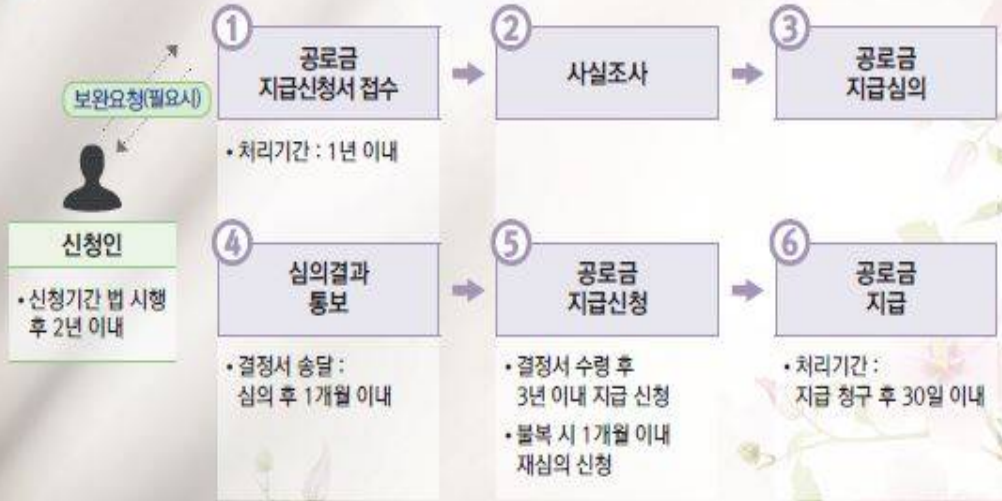
(자료제공: 국방부 6·25 비정규군 보상지원단 ☎02-6424-5502)



공로금 신청시 구비서류

공로자(본인)가 직접 신청하는 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 입원, 이민, 기타 사유로 공로자를 대신하여 대리인이 신청시 공로금 신청 위임장 [별지 제3호서식] 확인기관의 장 확인을 받아 제출 2. 공로자(본인) 주민등록표 초본 1부 *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유족이 신청하는경우	1. 공로금 지급신청서[별지 제1호서식] 2. 신청자 주민등록 초본 1부 * 공로금 지급신청서 하단에 행정정보 공동이용에 동의할 경우 미제출 3. 비정규군 활동서[별지 제2호서식] 4. 공로자 제적등본 또는 공로자와의 가족관계 기록사항에 관한 증명서 5. 유족대표자 선정서 또는 다수신청인 서명서 가. 대표자 1인에게 공로금 수령을 위임하는 경우(유족대표자 선정서 작성) [별지 제4호서식] * 위임을 받는 대표자의 주민등록표 초본1부 * 대표자에게 위임하는 위임자 각각의 인감도장 날인 및 인감증명서 1부 (서명으로 대체할 경우에는 서명 후 서명과 동일한 본인서명사실확인서로 대체 가능) 나. 2명 이상의 신청인이 개인별 공로금을 수령하고자 하는 경우(다수신청인 서명서 작성) [별지 제5호서식] * 신청인 각 개인의 주민등록표 초본 1부 6. 증빙자료(제출 가능한 자료만 제출) * 참전확인증, 제대증, 전역증, 비정규군 신분증, 명령지, 복무확인서, 근무당시 사진 등 비정규군 활동을 소명할 수 있는 자료들

보상절차



병영생활 고충상담, 성폭력 · 군범죄 신고/상담
「국 방 헬 프 콜 ☎ 1 3 0 3」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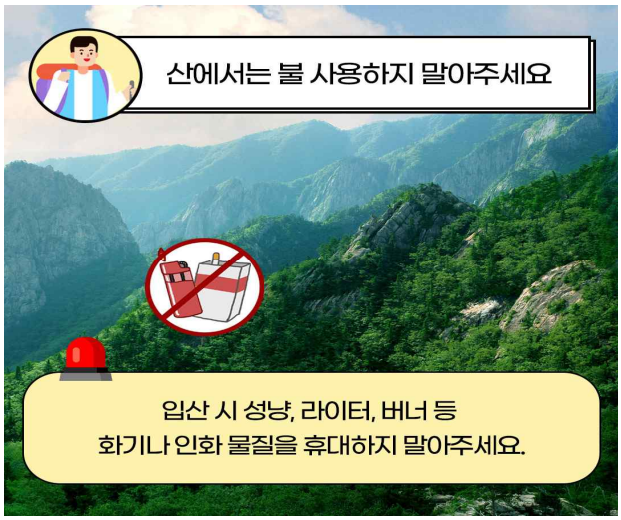
(자료제공: 국방부조사본부 ☎ 02-748-1973)

6 · 25전사자의 유가족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 국방부유해발굴감식단 계획운영처 ☎02-811-6526)

봄철 산불조심 작은 불도 위험해요

(자료제공: 행정안전부 환경재난대응과 ☎ 042-205-6171)



주민등록번호 바꿀 수 있습니다!

(자료제공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심사지원과 ☎ 044-205-6632~42)

○ **(신청요건)**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하여 생명·신체 위해 및 재산 피해를 입거나 입을 우려가 있다고 인정되는 사람

※ 주요사례 : 보이스피싱, 신분도용, 성범죄, 가정폭력, 데이트폭력, 학교폭력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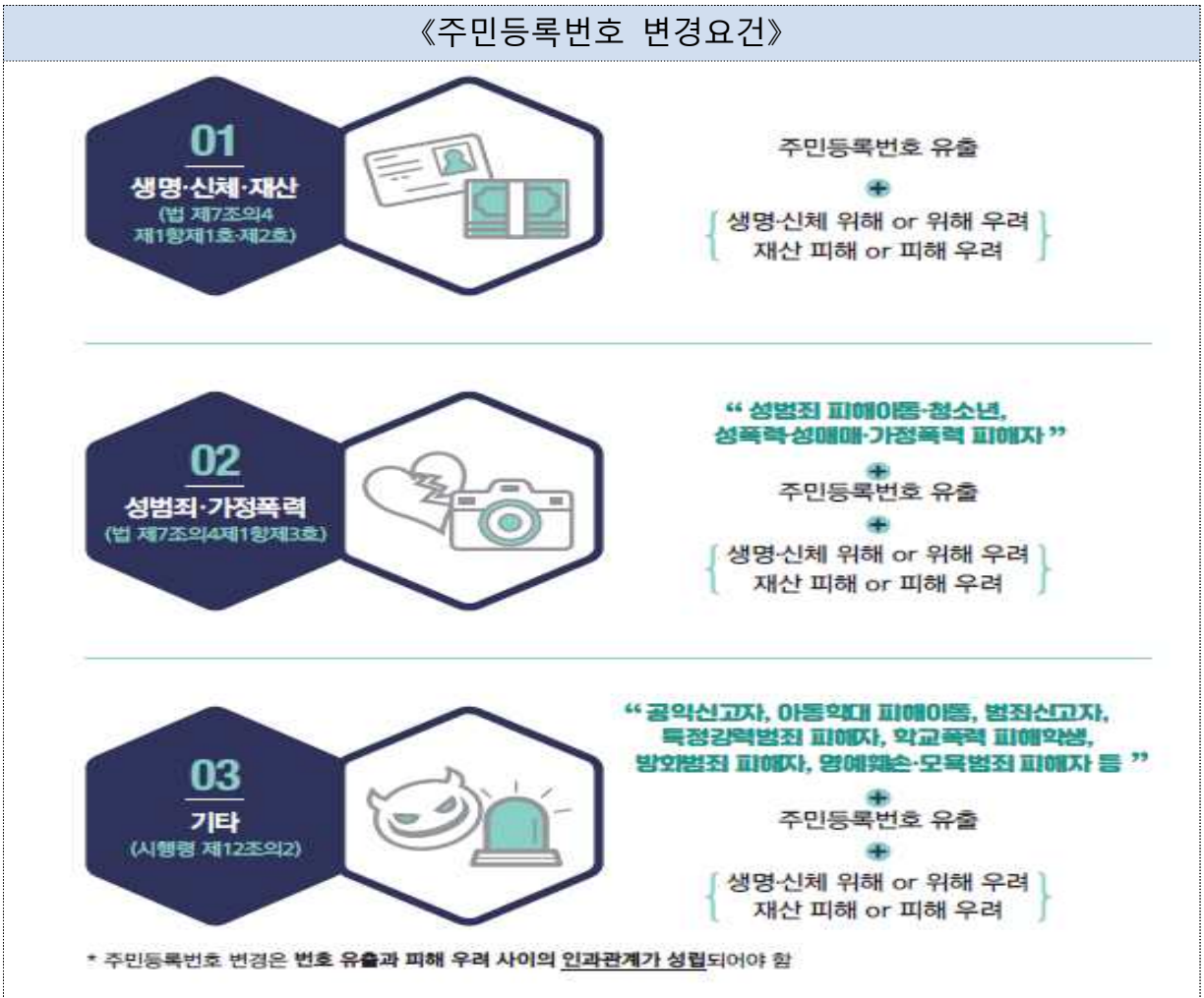
○ **(신청방법)** 주민등록지 읍·면·동 주민센터에 본인 또는 대리인 방문 신청

※ 상세절차 : 주민등록번호변경위원회 누리집(www.rrncc.go.kr) 참조

○ **(제출서류)** 주민등록번호변경 신청서, 주민등록번호 유출로 인한 위해·피해 또는 우려를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는 모든 자료

※ 자료예시 : (경찰)사건사고사실확인서, (법원)판결문, 보호명령,(피해지원기관)상담 또는 입소확인서, (병원)진단서, (금융)기관확인서, (기타)녹취록, 영상·사진 등

《주민등록번호 변경요건》



* 주민등록번호 변경은 **번호 유출과 피해 우려 사이의 인과관계가 성립**되어야 함

2022년 1월 국정홍보만화
- 체육계 인권침해와 비리에 대응하는 방법 -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 문화체육관광부(체육정책과) / (재)스포츠윤리센터 ☎ 044-203-3115

목록보기

2022년 1월 국정홍보만화
-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 6개월 연장 -

코로나19로 피해를 입은 개인채무자에게 가계대출 원금 상환유예를 6개월 연장합니다.

제작 : 문화체육관광부 여론과 ☎ 044-203-2922 / 자료제공 : 금융위원회 서민금융과 ☎ 02-2100-2611

2022년 농식품부 주요업무 추진계획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기획재정담당관실 ☎ 044-201-1317)

02 포스트코로나 시대에도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듭니다

스마트 농업 확산

- 스마트팜 혁신밸리 4개소 모두 완공

상주, 김제, 밀양, 고흥

- 스마트팜 혁신밸리 청년창업보육센터 청년 육성

- 해외 K-스마트팜 수출 거점 추가 조성

디지털 유통 촉진

- 온라인 거래소 거래 물량 확대
'21년 양파·마늘 도매시장 거래량의 5% → '22년 10% + 주요 채소·과일
- 축산물 온라인 경매 시범사업 실시(도매시장 4개소)

K-농업의 지평 확대

- 식량위기 국가에 대한 식량원조 추진
(6개국 쌀 5만 톤, 계속)

5만 톤

- 스마트농업 협력 사업 분야 확대

'21년 작물재배업 → '22년 축산 분야까지 확대
(베트남 양돈)

- 해외 온라인몰 한국식품관 확대

살고싶은 농촌 조성

- 농촌 정책을 연계·패키지 지원하는 '농촌협약' 확대

- 농촌공간정비 지원 확대

- 농촌에서 살아보기 프로그램 운영 확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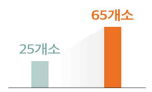
03 농업·농촌이 탄소중립 시대 전환에 앞장섭니다

농업 분야 탄소배출 저감

- 탄소배출 저감 최적 소 사육모델 개발 착수('22~'24)

- 친환경농업집적지구 지정 (신규 20개소)

- 농업환경보전프로그램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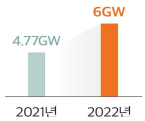
농업·농촌 에너지 이용구조 전환

- 공공형(지자체·공공기관) 가축분뇨 에너지화시설 운영(1개소)
+ 환경부 '친환경에너지타운조성사업'과 연계·협업
-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농촌 RE100 모델 발굴(4개소)

농촌 재생에너지 확산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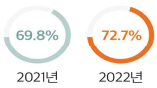
- 영농형태양광 표준모델 및 설계도 마련

- 농촌태양광 보급 확대(누적)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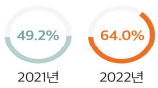
농업기반시설 기후변화 대비 강화

- 노후 수리시설 개보수
(전체 대상 : 5,842개소)



* 개보수 대상 수리시설의 완료비율

- 재해예방계측 설치
(전체 대상 : 1,353개소)



* 설치 대상 시설의 설치비율

농림축산식품부

경제회복의 온기를 확산시키고 디지털·탄소중립 구조전환으로 지속가능한 농업·농촌을 만들겠습니다

설 명절 농축산물 선물가액 상향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유통정책과 ☎ 044-201-2215)

2050 탄소중립 추진전략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재생에너지팀 ☎ 044-201-2918)

농림축산식품부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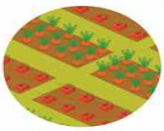
2050 농업분야 탄소중립 달성에 앞장서겠습니다

01 저탄소 농업구조로 전환을 가속화 합니다

정밀농업

- 정밀농업기술보급
  '21년 -% → '30년 10%
  → '50년 60%
- **정밀농업 모델개발**
- **스마트팜 혁신밸리** 확산

환경친화적 농업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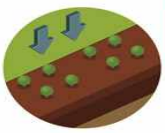


- 전체 경지면적 대비
  '19년 5.2% → '30년 12%
  → '50년 30% 확대
- **친환경 집적지구** 확산 가속화
- 지역 **푸드플랜**과 연계하여 급식 소비 확대

토양·용수 관리

- 지역단위 양분관리
  '21년 2개소 → '30년 30개소
  → '50년 전 지자체
- 토양양분 관련 **정보 DB화**
- 농약안전정보 **시스템 고도화**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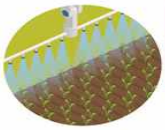
토양 저장기능 강화



- 온실가스 흡수
  '21년 -천톤 → '30년 58천톤
  → '50년 65천톤
- 바이오차 활용 **온실가스 흡수**
- 경운최소화, 피복작물 식재, 초지보전

02 분야별 특성을 고려하여 온실가스를 감축합니다

경종(작물재배)



- '18년 대비
  '30년 25% 감축
  → '50년 25% 감축
- **논물관리 및 용수관리** 체계화
- 질소질 **비료 사용량 감축**

축산

- '18년 대비
  '30년 18% 감축
  → '50년 32% 감축
- **저탄소 사양관리** 확대
- 가축 **분뇨처리** 개선

유통

- 로컬푸드 직매장
  '20년 554개소 → '30년 1,200개소
  → '50년 1,800개소
- 로컬푸드 확대 등 **푸드 마일리지 감축**
- 푸드플랜 **지역 내 생산-소비 연계 강화**

소비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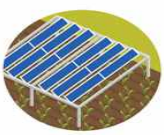
- 식생활 개선 및
  대체식품 소비를 통해
  '50년까지 1,195천톤 감축
- **식생활 개선** 및 음식물 폐기 최소화
- 저탄소 미래형 식자재 공급기반 확충

03 농업·농촌의 에너지 효율화·전환을 지원합니다

화석에너지 사용 축소 및 에너지 전환

- **생산 유통시설 에너지 효율화**
- **농기계 전기 전환** 및 노후농기계 조기 폐차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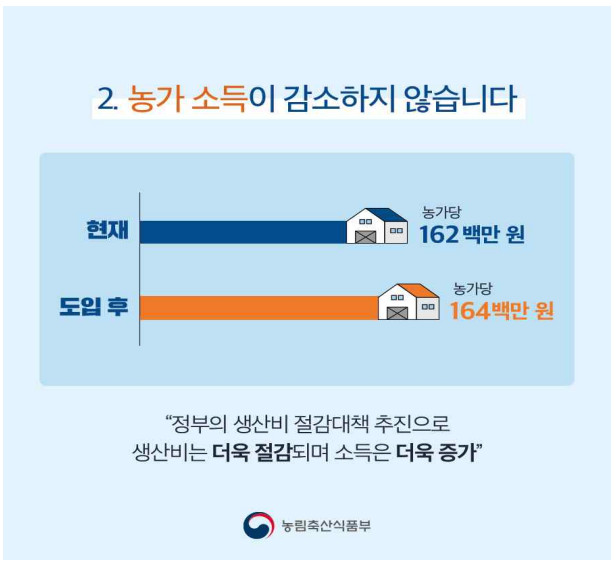
농업·농촌 에너지 자립 및 전환·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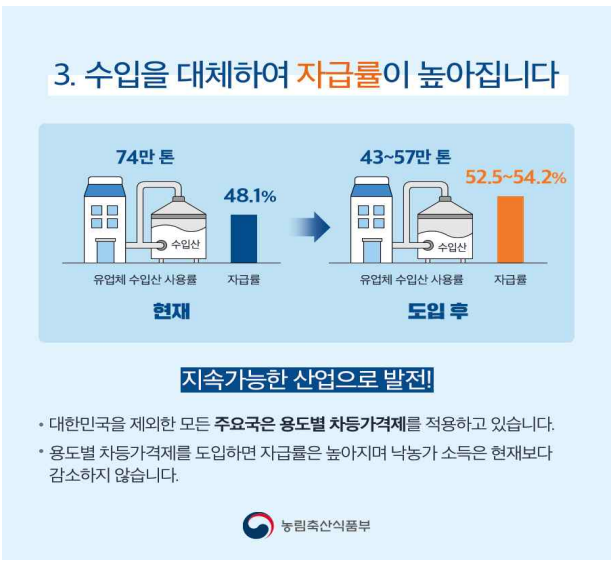


- 농촌공간계획을 위한 **농촌 태양광 체계적 확대**
- 농촌 자원을 활용한 농업 농촌마을 **RE100 지원**

원유 용도별 차등가격제 도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축산경영과 ☎ 044-201-2340)





스마트농업 확산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산업정책과 ☎ 044-201-2415)

스마트 농업 확산을 통해 농업·농촌의 혁신을 가속화하겠습니다

스마트농업 확산 | 산업 경쟁력 강화 | 전문인력 양성

스마트 농업이란? 시설원예·축사·과수·노지 및 전·후방산업을 포함하는 모든 분야에 ICT 기술을 융복합하여 생산의 정밀화, 유통의 지능화, 경영의 선진화 등을 창출하는 것 ('20,KREI)

농림축산식품부

농업혁신 가속화의 4대 방향

01 농업 빅데이터·인공지능 인프라 구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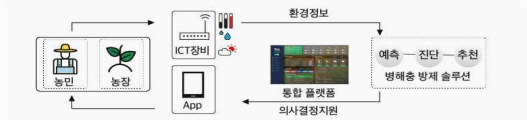
1. 표준화된 데이터 수집 확대 및 관리 강화
2. 클라우드 기반 통합 플랫폼 등 데이터 개방 · 공유 촉진
3. 바우처, 인공지능 경진대회 등 데이터 활용 촉진

02 스마트농업 거점 육성

1. 혁신밸리를 보육·실증·데이터 거점으로 육성
2. 혁신밸리를 중심으로 스마트농업 확산
3. 노지 스마트농업 거점 구축

03 기술·인력 및 장비 등 지원 강화

1. R&D를 통한 기술경쟁력 확보
2. 「농업 + 빅데이터·인공지능」 전문인력 양성
3. 기업 육성 및 투자 촉진
4. 기술 · 장비, 인공지능 서비스 등 보급
5. 전 · 후방 산업 연계



04 한국형 스마트팜 수출 활성화

1. 스마트팜 수출거점 조성 등 패키지 수출 지원
2. 기술협력, ODA 등 스마트팜 국제 협력

빅데이터·인공지능 강화 등 스마트농업을 고도화하여 농산업 전반을 혁신하겠습니다

2018년 스마트팜에서 커가는 혁신농업의 미래

- ✓ 스마트팜 보급 확대
  - ·온실: ('22년) 7,000ha · 축산: ('22년) 5,750호
- ✓ 혁신밸리 4개소 구축

정책수단

- 스마트팜 장비 보급
- 스마트팜 혁신밸리 조성 등
- 양질의 데이터 확보

2021년 스마트농업 확산 및 고도화를 통한 농업혁신 가속화

- ✓ 스마트농업 확산
  - ·온실: ('25년) 8,000ha · 축산: ('25년) 9,000호
- ✓ 산업 경쟁력 강화(기술격차 축소)
- ✓ 전문인력 양성('25년까지 1만 명)

정책수단

- 스마트농업을 실현할 수 있는 데이터 활용 기반 구축
- 빅데이터·인공지능 기반 농가지원 서비스 보급

스마트농업 확산

스마트농업을 통한 혁신성장과 농업문제 해결을 위해 총력을 기울이겠습니다

01 스마트농업 확산을 통해 **고령화, 기후변화** 등 국내 농업문제를 해결하고 **미래농업 전환 기반을 마련**하겠습니다.

02 첨단기술에 기반한 **연관 시장이 확대**되며, 빅데이터 · 인공지능 등 스마트농업 분야의 **전문인력을 확대**하겠습니다.

03 스마트농업 육성을 위한 **제도적 · 정책적 기반**을 구축하여 보급, 빅데이터 · 인공지능 활용 등 **미래농업 전환을 가속화**하겠습니다.

농림축산식품부

목록보기

공익직불금 신청 및 준수사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공익직불정책과 ☎ 044-201-1776)

2022년 공익직불금
신규 감액적용 준수사항 안내

농업농촌 공익기능 증진 교육 이수

아래와 같이 개설되는 교육과정을 이수해야 합니다.

1. 온라인 교육: 농업교육 포털(www.agriedu.net)
2. 집합교육: 새해영농교육, 농협품목교육 등

➲ 교육 미 이수시 직불금 10%가 감액 됩니다.

영농폐기물 적정처리

**영농 생활폐기물을 농지에 방치하거나 소각,
매립하면 안되고 지정된 장소에 버리셔야 합니다.**

➲ 방치 및 소각시 직불금 5%가 감액됩니다.

영농기록 작성 및 보관

매월 1회 이상 영농일지를 작성해야 합니다.

- 농약 비료 구입영수증을 보관 및 농작업 내역 기록
  (농약 사용일, 제품명, 사용량 등)

➲ 미 작성시 직불금 5%가 감액됩니다.

마을 공동활동 참여

**마을가꾸기 대청소, 마을축제 등 마을공동체 활동에
12시간 이상 참여해야 합니다.**

➲ 미 참여시 직불금 5%가 감액됩니다.

농림축산식품부 국립농산물품질관리원

2022년 밀 산업 주요 추진 정책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량산업과 ☎ 044-201-1835)

보급종 공급 확대

생산단지는 보급종
50% 할인하여 공급

생산단지 확대

고품질 밀 생산을 위한
맞춤형 컨설팅 제공

밀 농기계 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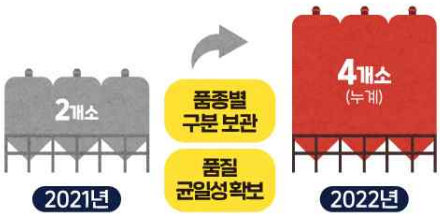
적기 수확, 건조를 위한
농기계 구입 비용 지원

비축 확대 및 계약재배 지원

밀 생산단지 중심
안정적인 판로 제공

건조·저장시설 지원

밀 생산단지의
건조·저장능력 확충



밀 가공업체 신규 지원

사용량에 비례한
제분·유통비 등 지원

1월 제철 농산물 홍보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식생활소비급식진흥과 ☎ 044-201-2274)

2022년 1학기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융자 신청

(자료제공: 농림축산식품부 농촌여성정책팀 ☎ 044-201-1566)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출산정책과 ☎ 044-202-3399)

2022년 새해에 태어난 소중한 생명들을 환영합니다!

	첫만남이용권	영아수당	아동수당
주요 내용	**출생하는 모든 아동**에 200만원 바우처 지급 (출생일로부터 1년 내 사용)	**만 2세 미만**의 아동을 **가정 양육시** 지급(24개월) * 어린이집이나 종일제 아이돌봄 서비스 등 정부지원 미이용 시 지급	기존 만7세 미만에서 **만8세 미만**으로 지급대상 확대('22~)
적용 대상	**'22.1.1. 이후 출생아**	**'22.1.1. 이후 출생아**	**만 8세 미만 아동**
지급 금액	**200만원**	**월 30만원** * '25년까지 월50만원으로 확대	**월 10만원**
지급 방식	**국민행복카드**에 일시금 **충전** ※ 지급 목적에서 벗어난 유흥업소, 사행, 레저 등 관련 유형으로 분류된 업종 등을 제외한 전 업종 사용가능	**계좌에 현금 입금**	**계좌에 현금 입금**
지급 시기	**'22.4.1.~** ※ 지급시기가 '22.4.1~ 임에 따라, '22.1~3월 생의 경우 '22.4.1~'23.3.31일까지 사용가능	**'22.1.25.~** (매월 25일 지급)	**'22.4.25.~** (매월 25일 지급) ※ 4월 지급 시, 1~3월분 소급 지급, '21년도에 연령 도래로 지급 중단된 수당은 소급지급하지 않음
신청 시기	**'22.1.5.~**	**'22.1.5.~**	**'22.2월 중**(추후안내)
신청 방법	방문 → 주민센터 아동의 주민등록 상 **주소지 읍·면·동 주민센터** ※ 영아수당은 부모가 신청할 경우 주소지 무관 전국 주민센터에서 신청 가능	온라인 → 복지로 (bokjiro.go.kr), 정부24 (gov.kr) ※ 아동의 보호자가 부모인 경우만 온라인 신청 가능 ※ 출생신고 시 행복출산 원스톱 서비스로 일괄 신청 가능 (온·오프라인 모두 가능)	

※ 건강보험 임신·출산진료비도 지원금액 인상 (60 → 100만원), '22.1.1.~ (임신 확인 시, 신청일 기준)
※ 아동 출생 전, 건강보험 임신·출산 의료비 지원 등을 받기 위해 "국민행복카드"를 발급받은 경우, 해당 카드에 첫만남이용권(200만원) 지급
※ 어린이집 또는 종일제 아이돌봄 이용 시에는 영아수당 대신 각각 보육료바우처(월 50만원), 종일제 아이돌봄 정부지원금(9~180만원) 지급

복지 위기가구를 찾아서 알려주세요!

(자료제공: 보건복지부 지역복지과 ☎ 044-202-3129, 3132)

복지 위기가구,
우리가 함께 찾고 함께 도와요!!

주변에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있으면 알려 주세요.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에서 직접 찾아갑니다.

1. 복지위기가구란?

경제적인 어려움이나 건강문제, 사회적 고립 등으로 인해 복지서비스가 필요한 가구

- 소득 감소, 실직, 휴·폐업 등 생계곤란 가구
- 자살 등 가족의 사망으로 인한 유가족
- 학대 위기 아동
- 코로나19로 인해 어려움을 겪고 있는 가구 등
- 쪽방, 고시원, 여인숙 등에 거주하는 주거취약 가구
- 중대한 질병, 장애 등 건강 문제로 도움이 필요한 가구
- 혼자 사는 돌봄이 필요한 가구

2. 누가 요청할 수 있나요?

도움이 필요한 당사자, 도움이 필요한 이웃을 발견한 자 누구나

* 신고의무자 : 사회복지시설 종사자, 경찰, 교사, 구급대원, 방문간호사, 통장,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등

3. 도움을 요청하고 싶다면?

신청, 문의처

가까운 읍면동 행정복지센터(주민센터) |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 지역민원상담센터 120 | 복지로(www.bokjiro.go.kr) 홈페이지 또는 복지로 모바일 앱

복지로(www.bokjiro.go.kr) '도움요청' 방법

❶ 도움요청	❷ 요청접수	❸ 상담	❹ 도움제공
복지로 포털 (PC, 모바일)에서 사연 작성	지자체 복지담당자 또는 보건복지상담센터 (☎129) 전달	• 지자체 : 맞춤형 복지 상담을 통해 지원여부 결정(14일 이내 회신) • 보건복지상담센터 : 자살 등 위기 대응 상담	필요한 복지서비스 제공

※ '도움요청'은 회원가입 없이 간단한 정보입력으로 가능
※ 복지로 홈페이지 또는 모바일로 언제, 어디서나, 간편하게 신청가능

4. 무엇을 도와주나요?

'찾아가는 보건복지 서비스'를 전국 읍면동에서 제공합니다.

도움이 필요한 대상자에게 복지상담, 긴급지원(생계비, 의료비 등), 건강관리, 돌봄, 후원, 통합사례관리 등

통합사례관리 : 복합적인 어려움을 겪고 있는 대상자에게 욕구조사를 거쳐 다양한 서비스(복지·보건·고용·교육 등)를 통합적으로 지원·연계

청소년의 걱정 · 고민상담,
「 1388 」을 기억하세요

(자료제공: 여성가족부 청소년자립지원과 ☎ 02-2100-6276)

'청소년상담1388' 전화와 문자 상담번호가 「1388」로 통일되었어요.
간편해진 문자상담 번호로 더 편하게 고민을 나눠보세요!

더 나은 삶을 위한 꿈의 공간, 청년주거지원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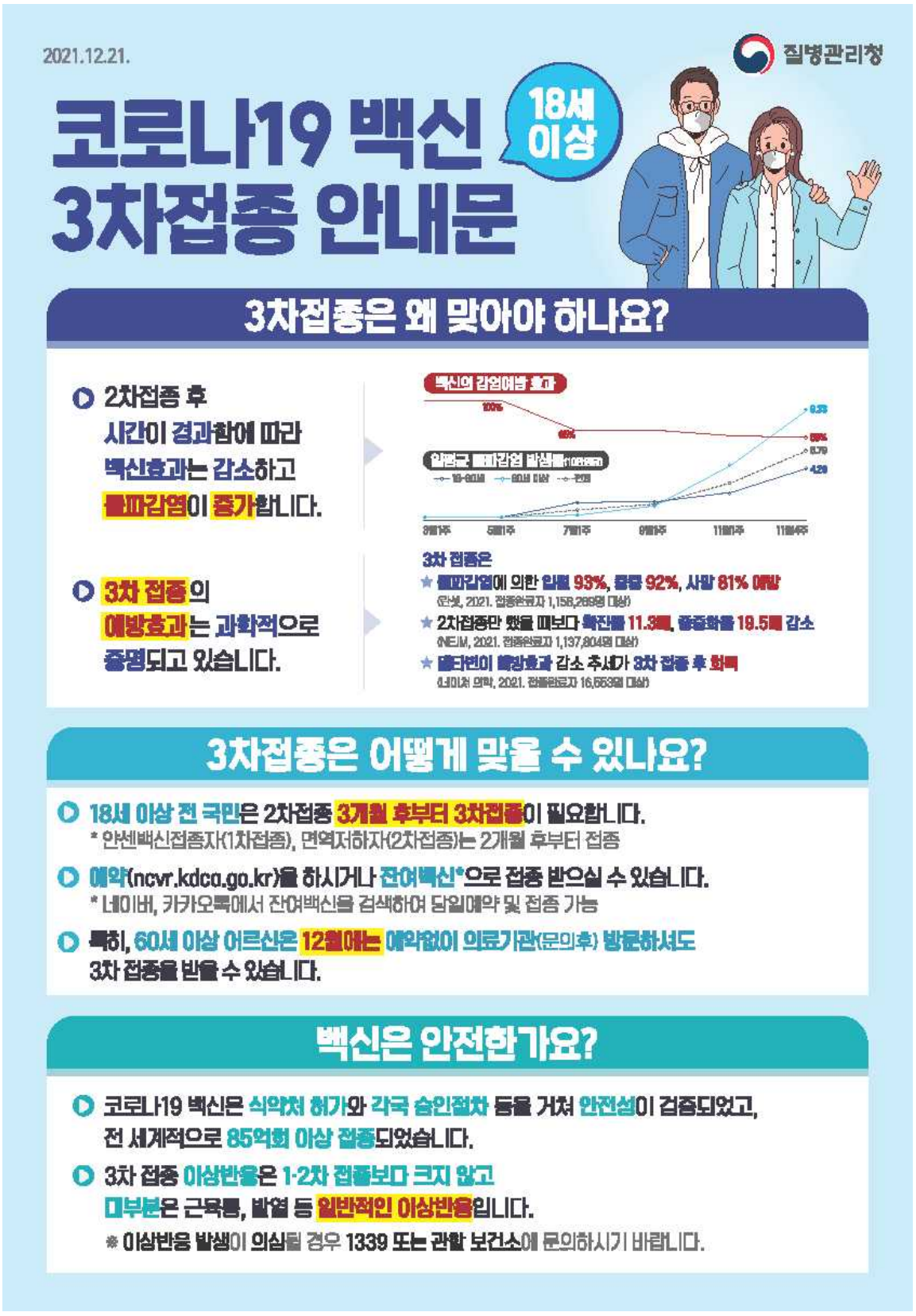
(자료제공: 국토교통부 대변인실 ☎ 044-201-3073)

문재인정부 5년 입법성과

(자료제공: 법제처 대변인실 ☎ 044-200-6517)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 당부 등 국민행동수칙 안내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대변인실 ☎ 043-719-7783)



건강한 겨울나기, 이렇게 준비하세요!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미래질병대비과 ☎ 043-219-2956)

건강 수칙을 지켜주세요!

생활습관

가벼운 실내운동, 적절한 수분섭취,
고른 영양분을 가진 식사하기

실내환경

실내 적정온도(18~20℃)를
유지하고 건조해지지 않도록 하기

외출 전

체감온도 확인하기
(날씨가 추울 경우 야외활동 자제)

외출 시

따뜻한 옷 입기
(장갑, 목도리, 모자, 마스크 착용)

이런 분들 더욱 조심하세요!

저체온증 위험군

- 음식이나 보온(옷, 난방)이 적절하지 않은 노인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추운 환경에서 지내는 영유아
- 술을 과음하거나 향우울제 또는 금지된 약물을 복용한 사람

동상 위험군

- 장시간 야외에서 지내는 사람(노숙인, 등산객, 실외작업자 등)
- 극심한 추위에도 적절한 의복을 입지 못한 경우
- 혈액순환 장애가 있는 경우

한랭질환 증상 시 이렇게 조치하세요!

1. 가능한 한 빨리 의사의 진찰을 받으세요.
2. 따뜻한 장소로 이동하세요.
3. 젖은 옷을 모두 제거하세요.
4. 담요나 옷으로 몸을 따뜻하게 합니다.
5. 동상 부위가 있다면 따뜻한 물에 담급니다.

올해부터 2004년생의 코로나19 백신 3차접종을 시작합니다!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6)

올해부터 생일이 지난 2010년생의 코로나19 예방접종을 시작합니다!

(자료제공: 질병관리청 코로나19예방접종대응추진단 홍보관리팀, ☎ 043-913-2336)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자료제공: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1)

○ **누리집 접속방법**

- 국가보훈처 누리집(www.mpva.go.kr) 메인화면 우측 <독립유공자의 후손을 찾습니다> 클릭
  (https://e-gonghun.mpva.go.kr 메인화면 오른쪽 상단 배너)

2022년 2월의 독립운동가 강기덕 선생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공훈관리과 ☎ 044-202-5780)

3·1운동에서 신간회까지, 독립을 위한 평생의 헌신

국가보훈처(처장 황기철)는 광복회, 독립기념관과 공동으로 강기덕(1886~미상) 선생을 2022년 2월의 독립운동가로 선정하였다.

강기덕 선생은 3.1운동을 시작으로 신간회에 이르기까지 국내에서 다양한 단체에 몸담으며 독립운동을 했으며 해방이후에는 남북의 분단을 막기 위해 노력하는 등 평생을 조국을 위해 헌신한 독립운동가이다.

선생은 3·1운동 당시 보성법률학교(고려대 전신) 학생으로 민족자결주의를 주장하며 학생들의 역할을 주장하며 적극적인 참여를 이끌어냈다. 이렇게 모인 학생들은 3·1운동의 전개 과정에 있어 독립선언서와 격문을 배포하고 시위를 주도하였다. 선생은 2월 28일 독립선언서를 가지고 와, 각 학교 학생들에게 독립선언서를 나누어 주었다.

선생은 김원벽과 함께 2차 시위의 학생층 대표로 선출되었다. 3월 4일에 시위의 방법을 주변 학생들과 논의하였고, 다음날인 3월 5일에는 남대문 정차장으로 가서 인력거를 타고 깃발을 흔들며 군중들의 선두에 서서 함께 만세를 불렀다. 그는 3·1독립운동에 민족대표 48명 중의 한 사람이었다. 이로 인하여 경성복심법원에서 2년이 구형되었으나, 최종 1년 6개월 형이 확정되었다.

1921년 11월 9일자로 만기출소 이후 자신의 고향인 원산으로 돌아가 인쇄업에 종사했던 것으로 보이지만, 3·1운동 정신은 이어갔다. 선생은 1924년 3월경 덕흥인쇄소에서 원산 보광학교의 3·1운동 5주년 기념 인쇄물을 만들었다.

선생은 교육에도 종사하였다. 그는 1923년 함경남도 덕원군에서 민립대학설립운동 발기인으로 참여하였고, 누씨여자고등보통학교(樓氏女子高等普通學校) 학부형회 부회장을 맡은 바 있다. 이런 교육활동의 연장으로 원산 내 청년들에게 혼인 및 농촌운동 등을 주제로 강의하며 근대적 계몽운동의 중요성도 설파했다. 그리고 1926년 1월에는 덕원청년동맹(德源靑年同盟) 창립에 가담하며 청년운동 지원에도 적극적이었다.

한편, 그는 언론인이기도 했다. 당시 『경성일보』에 의하면 좌경향 사상단체가 원산에서 일제 검거 되었는데, 이들은 경성을 본거지로 하여 만주와 내지(內地, 당시 일본을 표현)에서 연락을 했다는 것이었다. 그 14명 중의 하나가 바로 시대일보 원산 지국장 강기덕이었다. 그는 1924년 10월 17일 『시대일보』 고문을 맡고 있었고, 1925년 7월 1일 오후 10시 함남기자대회 발기인회에 가담하였다. 7월 17일 『시대일보』 주최 강연회를 맡았을 때 바로 그가 『시대일보』 원산지부 지국

장을 맡고 있었던 시기였다. 1926년 8월 24일 원산에서 가까운 안변의 안변삼합청년회에서 주최한 강연(800명 참석)에 연사로 나서 '중국 고대의 정전법'을 예로 들며 '조선의 무산계급과 농민계급'을 언급, '사유재산 제도를 부정'하는 연설도 했다. 이로 인해 안변경찰서에서 그를 취조하였다. 이후 함흥지방법원 원산지청검사국에 압송된 선생은 1926년 9월 10일 6개월 형을 선고받았지만, 불복하고 항소하였다. 그는 재판장에서 조선농민의 참담한 현실을 바라보며 현재의 경작제도의 문제를 개선하여 농민들의 수입증진을 도모한 것이라고 주장했지만 받아들여지지 않았고 형이 확정되어, 1927년 3월 27일에 만기 출소하였다.

선생이 치안유지법 위반으로 징역형을 살다가 다시 출소한 시기는 비타협적 민족주의 계열과 사회주의자들이 민족협동전선을 꾸린 신간회 원산지부의 결성이 막 이루어진 시기였다. 그는 이전에 물산장려후원기관으로 설립된 조선민흥회(朝鮮民興會) 위원, 조선민족단일선을 조직하기 위한 준비위원 등에 참여하였다. 그러나, 위에서 살펴보았듯이 불온한 발언을 했다는 죄목으로 징역을 받고, 출소한 이후 얼마 되지 않아 4월 10일 오후 함남덕원청년동맹에서 정기총회 사회를 맡았다.

그가 신간회에 가담하게 된 시점은 1927년 7월 2일이었다. 원산의 유지 이가순(李可順), 한흥근(韓興根) 등과 함께 진명여자강습소에 모였다. 이들은 신간회 원산지회 설치 건을 의결하였고, 참여한 이들은 만장일치로 이에 대해 찬성했다. 그리하여 발기인회가 개최되었고, 임시의장에 이가순, 사회와 임시서기에 김상익(金相翊) 등이 임명되어 정식 개회하였다. 선생은 신간회 원주지회 설립준비위원과 상무위원을 맡았다. 그리하여 신간회 원산지회 설립대회가 7월 11일 오후 2시에 광석동(廣石洞) 남양(南陽) 사진관에서 이가순의 개회사로 열리게 되었다. 여기서 회장은 임시의장을 맡았던 이가순, 부회장은 사회와 임시서기를 맡았던 김상익이 각각 선출되었고, 선생은 간사를 맡았다. 신간회 활동을 하면서 독립운동에도 적극 가담하였는데, 이 달 그는 원산과 영흥, 고원 일대에서 청년들과 함께 한일병탄 기념일에 격문을 인쇄하고 배포할 계획을 세우다가 경찰에 적발되었다.

그러던 와중에 함남기자연맹사건이 일어났다. 기자단은 언론의 자유를 보장하기 위한 대책을 마련하고 신문지법 중단을 촉구하였다. 또한 소작쟁의에 관한 불량지주의 죄악을 조사 하고 농민의 각성을 촉구하였다. 경찰의 방해에도 불구하고, 선생은 1927년 12월 26일과 27일 함경남도 고원군(高原郡)에서 함남기자대회(제4회)를 열었다. 경찰의 해산에 불복하고 탄핵과 시위대회를 벌였고, 결국 그는 8개월 징역형을 선고 받았고, 1929년 11월 18일 만기출소했다.

출소 후 그는 신간회 원산지부 지회장에 선임되었지만, 광주학생항일운동 발생 이후 원산학생들이 일으킨 일제 반대 시위에 연루되어 1930년 2월 8일 또다시 구속되었다가 풀려났다. 이후 선생은 다시 신간회 덕원지회 집행위원장을 역임하고, 원산지회 집행위원장을 맡게 되었다. 이 시기는 경제공황 이후 코민테른

에서 민족주의자와 연합을 포기하라는 지령이 내려옴에 따라 신간회 해소론이 제기되고 있던 시점이었다. 그리고 신간회 전체대회가 있을 때 집행위원을 맡았다. 1931년 5월 15일 일제 경찰 집회 허가로 전국대회를 소집하였지만, 해소를 결의하여 이날을 기점으로 신간회는 해소되었다.

그는 신간회 해소 이후에도 여전히 독립운동에 가담하였다. 혁명적 노동조합에 참여한 동아일보 원산지국 기자 박휘병(朴輝秉)(원산 당하리)이 잡혀 원산 고등계에서 취조중에 1933년 3월 13일 사망하자, 선생은 그의 사회장을 준비했다가 검거되었다가 다시 석방되었다.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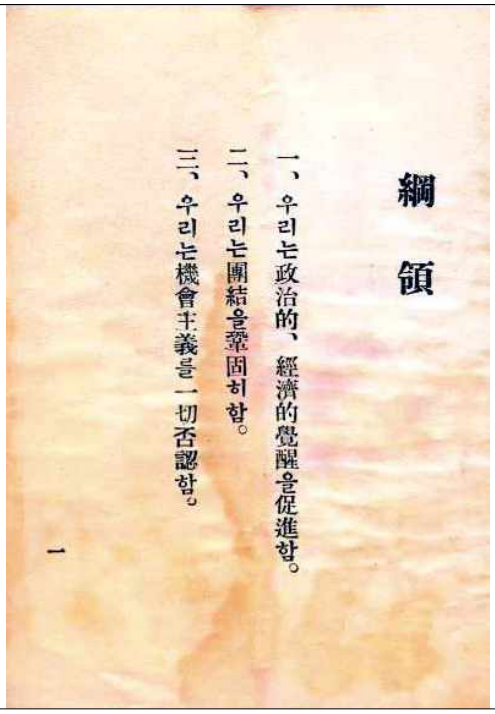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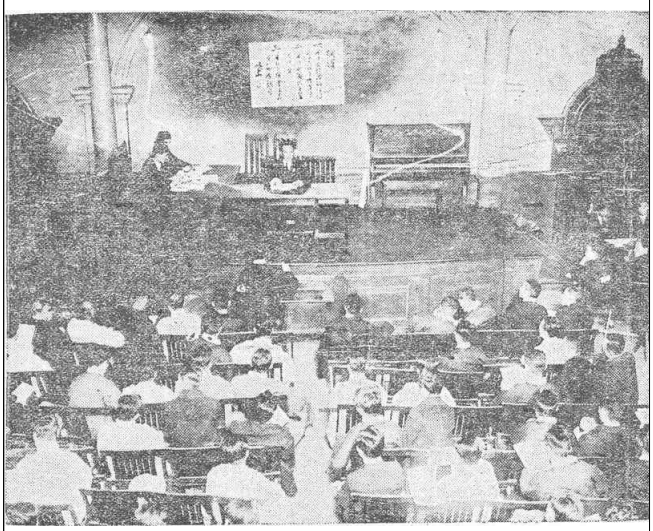
이후에는 원산노동조합의 간부로 재건 운동을 주도했다는 이유로 인하여 1933년 또다시 징역 1년 2개월 형을 받았고, 1935년 3월 31일에 만기 출소했다. 일제강점기 그의 대부분의 삶은 독립운동과 이로 인한 형무소 수감생활이 대부분이었다.

그러다가 광복이 되었다. 선생이 바라던 조선의 독립은 이루어졌으나, 광복과 함께 미국과 소련군이 한반도에 진주하게 되었고, 이 시점에서 선생은 남북분단을 막으려 애썼다. 그는 신탁통치반대 국민총동원 위원회(위원장 권동진) 중앙위원 등을 맡았다. 한때 근로대중당에 영수로 가입하였다가 탈당하였고, 대한국민당 발기 준비회에 참여하였다.

요컨대 그는 일생 내내 독립운동을 하면서, 절반 가까이의 생애를 감옥에서 보낸 인물이었다. 또한 농민들을 보호하는 사회주의적 성향을 보임과 동시에 민립대학설립운동을 전개하는 등 민족주의 운동도 전개하였다. 광복 이후에 반탁운동을 전개하여 통일정부수립을 위해 노력하였지만, 바라던 꿈을 실현시키지 못했고, 6·25전쟁 이후 납북되었다.

대한민국 정부는 1990년 강기덕 선생의 독립운동 공적을 인정하여 건국훈장 독립장을 추서했다.

【 첨부 】 관련 이미지 (출처 : 국가보훈처, 독립기념관)

<table>
<tr><td> </td><td> 
</td></tr>
<tr><td>강기덕 선생</td><td>신간회 강령</td></tr>
<tr><td>  </td><td></td></tr>
<tr><td>신간회 창립총회</td><td></td></tr>
</table>

※ 동 내용은 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022년 2월의 6·25전쟁영웅 여성의용군

(자료제공 : 국가보훈처 제대군인지원과 ☎044-202-5715)

국가보훈처는 **‘여성의용군’을 ‘2022년 2월의 6·25전쟁영웅’으로 선정하였다.**

- 6·25전쟁 중 여성의용군은 국방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호국정신의 일념 아래 참전하였고 다양한 성격을 띠고 활동하였다. 육·해·공군 등에 자원입대하여 전후방 각지에서 주어진 임무에 최선을 다하였고 군번도 없는 민간인 신분으로 학도의용군·민간간호사·유격대 및 기타 군사활동에 적극 참여하는 등의 전투 및 지원업무를 수행하였다.

□ 6·25전쟁 당시 대한민국 여성들은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자 조국수호를 위해 전선에서의 전투활동을 비롯하여 간호·정훈·심리전·행정 및 전투근무지원 등을 수행하였고, 군에 입대하지 않은 여성들은 학도의용군·철도근속·간호요원·예술대원 등으로 활약하였다.

○ 육군 여성의용군은 1950년 9월 1일에 창설된 여자의용군교육대에서 배출되었는데, 이들은 국방부 및 육군본부를 비롯하여 여군훈련소, 전방 군단 및 사단, 그리고 정훈대대, 정보 및 첩보부대, 예술대, 경리·통신·병기·보급부대 등 전후방 각급부대에 배치되어 전투활동, 전투지원 및 전투근무지원 임무를 수행하였다.

○ 해병 여군은 6·25전쟁 발발 당시 제주도에서 자원입대한 미혼 여교사와 여학생들로 구성되었는데, 이들은 진해 해군통제부와 부산의 해군본부에 배치되어 행정·보급·정비·간호보조·헌병·정훈·통신·교환 등의 분야에서 전투근무 지원활동을 하였다.

○ 공군의 여성항공병은 9·28 서울수복 이후 공군본부 참모부서에 배치되어 행정보조업무를 수행하였고 이후 일부인원은 전역하고 나머지 인원들은 주로 기상 및 통신업무를 수행하였다.

○ 육군 및 해군의 간호장교는 6·25전쟁 이전부터 임관되어 간호업무를 수행하였고 6·25전쟁이 발발하자 여러 가지의 어려운 여건 속에서도 본연의 임무를 훌륭히 수행하였다.

○ 또한, 6·25전쟁 중에는 여러 분야에서 군번없는 여성들의 다양한 활약이 있었다. 학도의용군, 민간 간호사, 유격대원, 그리고 군사활동을 지원한 다수의 여성들이고 이들은 전투현장을 비롯한 간호활동·행정지원·유격활동·첩보수집·철도근무·예술대원 등으로 활동하였다.

□ 여성의용군은 조국이 누란의 위기에 처하게 되자 국방의 의무가 없음에도 불구하고 어떠한 보상과 대가의 기대없이 오직 호국정신과 나라사랑정신으로 참전하였다.

○ 이러한 고귀한 희생과 실천은 현재 우리 여군이 육·해·공군 및 해병대는 물론이고 유엔평화유지군으로 해외파병부대에까지 배치되어 활동하는 등 자랑스럽고 막강한 모습으로 성장하는 토대를 마련하였다.

※ 동 내용은 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

2월의 호국인물 전명운 의사

(자료제공: 교육문화부 문화교류팀 ☎ 02-709-3149)

전명운 의사는 1884년 6월 25일 한성부 명례방 종현(現 서울특별시 중구 명동 천주교성당 부근)에서 태어났다. 1903년 미국으로 이민, 하와이에 정착하였다가 1년 후 샌프란시스코로 이주한 전 의사는 안창호(安昌浩)를 중심으로 설립한 애국계몽운동 단체인 공립협회(共立協會)에 가입하여 활동하였다.

1903년 3월, 대한제국 외교 고문으로서 을사늑약 등을 체결하는데 일본을 도운 더럼 W. 스티븐스(Durham White Stevens)가 미국으로 귀국하여 '일본의 한국 지배는 한국에 유익하다.'라는 등의 발언을 하였다. 이에 샌프란시스코 지역 한인들이 항의하며 발언 철회와 사과를 요구하였으나, 스티븐스는 사과는커녕 '한국의 인민은 우매하여 독립할 자격이 없다.'라는 등의 궤변을 늘어놓았다. 이에 전명운 의사는 스티븐스를 처단하기로 결심하였다. 1908년 3월 23일, 권총을 준비하여 오클랜드의 페리 부두 선창에서 기다리던 중 스티븐스가 도착하자 그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였다. 그러나 권총이 불발되자 권총 자루로 스티븐스의 얼굴을 가격하며 격투를 벌였다. 이때 역시 스티븐스를 저격하기 위해 기다렸던 장인환(張仁煥)이 스티븐스를 향해 권총을 발사하여 저격하였다(스티븐스 저격 의거). 장인환의 저격에 중상을 입은 스티븐스는 이틀 뒤 사망했다. 전명운 의사는 장인환과 함께 체포되었으나 동포사회의 끈질긴 석방 운동을 통해 6월 27일 무죄 석방되었다.

이후 일제의 감시를 피하고자 이름을 맥 필즈(Mack Fields)로 개명하였다. 1908년 러시아 블라디보스토크로 이동하여 최재형(崔在亨), 안중근(安重根)이 활동한 동의회(同議會)에 참가하였으며, 미국 한인 독립운동단체인 국민회(國民會)의 특파원으로 활동하였다. 1909년 미국으로 돌아온 후, 국민회 활동을 계속하던 중 2차대전이 발발하자 전시봉사회(戰時奉仕會)를 조직하고, 한인국방경위대(韓人國防警衛隊: 猛虎軍, Korean Brigade)에 참여하여 조국의 독립에 이바지하고자 하였다.

1947년 11월 18일 미국에서 타계하여 미국 로스앤젤레스 위티어(Whittier) 천주교 묘지에 안장되었다. 이후 1994년 국내로 유해가 봉환되어 국립서울현충원 독립유공자 묘역에 안장되었다. 정부는 전명운 의사의 공훈을 기려 1962년 건국공로훈장 복장(現 건국훈장 대통령장)을 추서하였다.

붙임1 전명운 의사 존영

출처: 독립기념관

※ 동 내용은 2월 이후에 대중에게 공개되어야 하므로, 사전에 지자체 홈페이지, 지역신문 기사 등에 미리 게시되는 일이 없도록 협조 부탁드립니다.